SECTOR
UPDATE

2026. 4. 1

Innovation팀

강영훈 Analyst
yeonghoon.ka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3월 IPO Market Review

##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 선별적 흥행

- 3월 8개 종목 신규 상장 (코스피 1, 코스닥 7) 및 공고금액 6,971억원 조달
- Key Point ① –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 평균 61.0% (vs '25년 18.9%)
- Key Point ② – 액스비스, 에스팀,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일 따따블 기록

## WHAT'S THE STORY?

**3월 IPO Market Review:** 3월 IPO 시장은 총 8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하며 (코스피 1, 코스닥 7, 스팩 제외), 강화된 심사 기조에 따른 연초 상장 가뭄을 해소하고 총 공모금액 6,971억원 조달에 성공. 지난 1월 덕양에너젠이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1,354:1을 기록하며 공모주 투자 열기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팩을 제외하면 1~2월 전체 상장 건수가 1건(vs '25년 1~2월 합 15건)에 그치며 공모 시장 불확실성은 상존했던 상황. 그러나 3월 대형주 케이뱅크(공모금액 4,980억원)가 코스피에 입성하며 물꼬를 텄고,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형주 기업들이 모두 공모가 상단을 확정하고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 2,082:1을 기록하는 등 흥행 릴레이 지속. 다만 코스피에 상장한 케이뱅크는 공모가 하단 확정 및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 +0.4%를 기록하며 흥행이 다소 부진. 이는 현재 IPO 시장의 열기가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선별적 종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 잣대는 여전히 엄격함을 시사

**Key Point ① – 기관들의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 도입으로, 기관들은 공모주 배정 물량 확보를 위해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확약을 신청하고 있음. 실제로 3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 평균은 61.0%로, '25년 평균 18.9%를 훨씬 상회(스팩·리츠 제외). 기관 의무보유 확약률 상승은 상장 초기 매도 물량을 완화함으로써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효과는 물론, IPO 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건전화 기조에 맞춰 장기 가치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로 파악

**Key Point ② – 코스닥 3개 종목 상장 당일 수익률 +300% 기록:**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에서 최대 상승폭 +300%를 기록한 종목들은 3월 총 3팀 (vs '25년 총 5종목). 구체적으로 레이저 솔루션 기업 '액스비스'와 콘텐츠업 및 모델 매니지먼트 '에스팀', 자가면역질환 항체 치료제 전문기업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따따블 고지에 올라서며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수익률을 안겨주었는데, 위 세 기업은 각기 너무나 다른 산업에 특정 유행 섹터에 편중되지 않는 전방위적 흥행이 나타났음

**4월 IPO Market Preview:** 인벤테라 (4/2 상장, 코스닥 196억원), 채비 (4/1~2 청약, 코스닥 1,230~1,530억원) 상장 예정. 향후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공급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2분기까지는 코스피 시장의 대어급 종목 상장 추진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 3월 IPO Market Review

3월 IPO 시장은 총 8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하며 (코스피 1, 코스닥 7 – 스팩, 리츠 제외), 강화된 심사 기조에 따른 연초 상장 가뭄을 해소하고 총 공모금액 6,971억원 조달에 성공해 전년 동월 대비 공모금액 상승.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공모금액 1,815억원)이 상장했던 25년 3월에는 총 8개 종목이 신규 상장하며 (코스피 2, 코스닥 6 – 스팩, 리츠 제외), 총 공모금액 3,551억원을 조달한 바 있음

올해 1월 수소 생산 및 공급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이 공모가 상단 확정 및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1,354: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공모 금액 750억원을 조달해 IPO 시장에서의 투자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심사 기조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금지 등에 따라 스팩을 제외하면 1~2월 전체 상장 건수가 1건(vs '25년 1~2월 합 15건)에 그치며 절대적 상장 종목 수 부족에 따른 낮은 공모금액으로 IPO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했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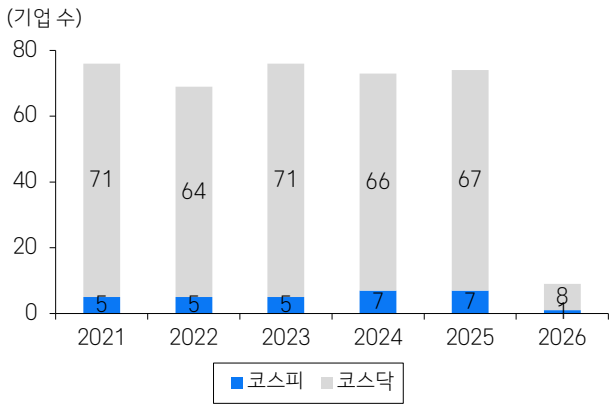
그러나 3월 5일 케이뱅크가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에 입성해 공모금액 4,980억원을 조달하며 대형주 상장의 물꼬를 텄고, 이후 에스팀(3/6, 모델 에이전시 및 콘텐츠), 액스비스(3/9,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한패스 (3/25, 외국인 디지털 송금 서비스), 메쥬 (3/26,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등 스팩 제외 다양한 섹터의 7개 코스닥 중소형주 기업들이 모두 공모가 상단을 확정하고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 2,082:1 (vs '25년 코스닥 상장 평균 1,132:1)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수치를 보이며 흥행 릴레이를 지속. 다만 코스피에 상장한 케이뱅크는 공모가 하단 확정 및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0.4%를 기록하며 타 코스닥 중소형주 대비 다소 흥행이 부진했던 점은 고려해야할 대목. 이는 현재 IPO 시장의 열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보단 비교적 가벼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선별적 종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 잣대는 여전히 엄격함을 시사

**표 1. 2026년 3월 IPO 현황**

| 회사명 (시장) | 상장일 | 확정 공모가 (원) | 공모 금액 (십억원) | 수요 예측 | Valuation* | 일반 경쟁률 (X:1) | 기관 경쟁률 (X:1) | 주관사 |
|---|---|---|---|---|---|---|---|---|
| 케이뱅크 (KS) | 3월 5일 | 8,300 | 498.0 | 하단 | 3Q25 자본총계 PBR 1.45x | 134.6 | 198.5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
| 에스팀 (KQ) | 3월 6일 | 8,500 | 15.3 | 상단 | 3Q25 LTM EV/EBITDA 13.1x | 1,960.9 | 1,124.2 | 미래에셋증권 |
| 액스비스 (KQ) | 3월 9일 | 11,500 | 26.5 | 상단 | 3Q25 연환산 순이익 PER 21.1x | 2,711.0 | 1,334.9 | 한국투자증권 |
| 카나프테라퓨틱스 (KQ) | 3월 16일 | 20,000 | 40.0 | 상단 | 2028E 순이익 현재가치 PER 19.0x | 1,899.3 | 962.1 | 한국투자증권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KQ) | 3월 20일 | 26,000 | 52.0 | 상단 | 2028E 순이익 현재가치 PER 13.4x | 1,805.8 | 839.2 |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
| 한패스 (KQ) | 3월 25일 | 19,000 | 20.9 | 상단 | 3Q25 연환산 순이익 PER 20.3x | 1,671.5 | 1,108.9 |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
| 메쥬 (KQ) | 3월 26일 | 21,600 | 29.1 | 상단 | 2028E 순이익 현재가치 PER 16.6x | 2,428.0 | 1,172.6 | 신한투자증권 |
| 리센스메디컬 (KQ) | 3월 31일 | 11,000 | 15.4 | 상단 | 2027E 순이익 현재가치 PER 21.3x | 2,097.7 | 1,352.6 |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 엔에이치스팩33호 | 3월 27일 | 2,000 | 12.7 | | | 569.0 | 1,228.7 | NH투자증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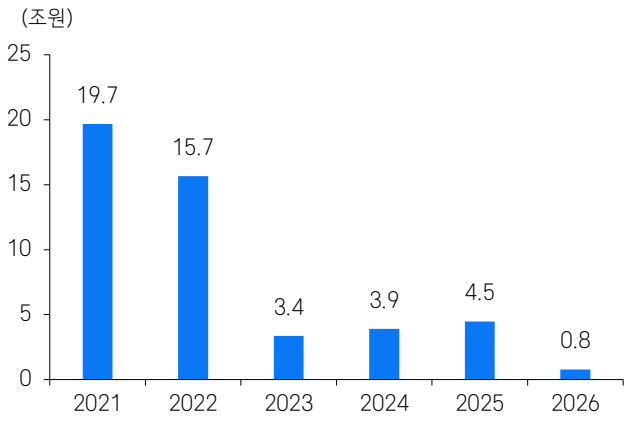
참고: Valuation은 할인율이 반영된 공모가 확정치 기준
자료: KIND, Quantiwise,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1. 연도별 신규 상장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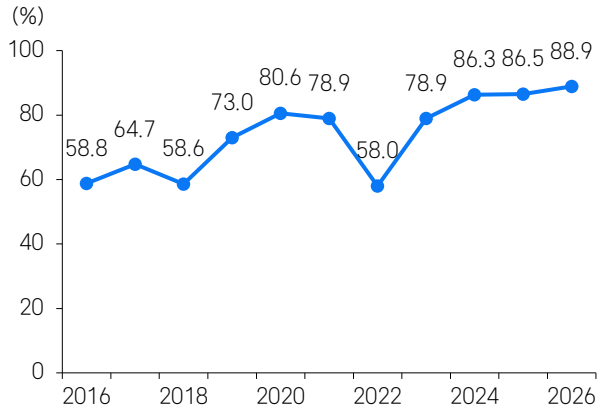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2. 연도별 공모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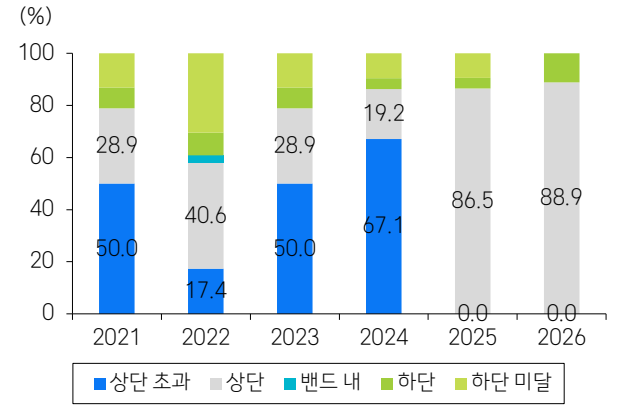

참고: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3. 연도별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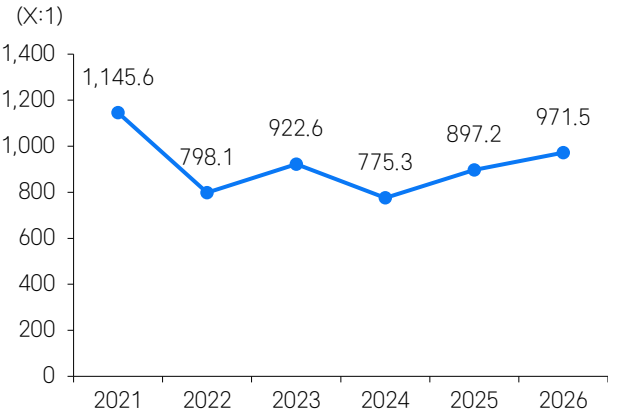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4. 연도별 수요예측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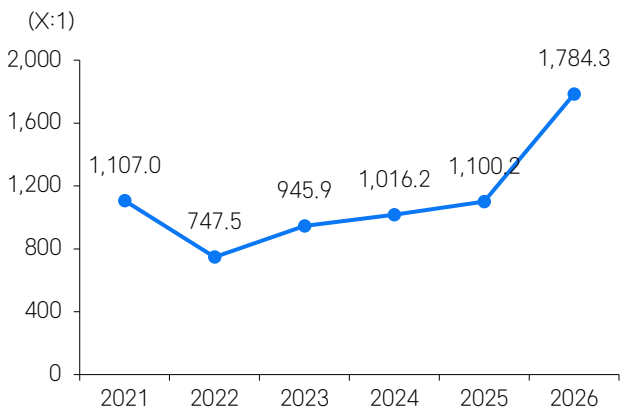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5. 연도별 기관 투자자 평균 경쟁률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6. 연도별 일반 투자자 평균 경쟁률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Key Point ① – 기관들의 높은 의무보유 확약률:

3월 IPO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 도입에 따른 기관들의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에 주목할 필요. 과거에는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더라도 주관사가 배정 물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높았기 때문에 확약의 실효성은 극히 낮았음. 이에 과거 IPO 시장에서는 상장 당일 기관들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대량의 단기 차익 물량이 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장한 77개 종목 중 무려 74개 종목 (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의 순매도가 발생.

그러나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확약 40% 우선배정제도 도입 (작년 7월부터 확약 30%로 완화 도입) 및 최대 가점기간도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기관들은 공모주 배정 물량 확보를 위해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확약을 신청하는 상황. 실제로 3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 평균은 약 61.0%로, 25년 평균 약 18.9%를 훨씬 상회(스팩·리츠제외). 실제 확약 배정률도 평균 약 87.0%에 달해, 제도 도입 이전 '25년 상반기 20.9%에서 크게 상승. 기관 의무보유 확약률 상승은 상장 초기 매도 물량을 완화함으로써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효과는 물론, IPO 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건전화 기조에 맞춰 장기 가치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

**표 2. 3월 IPO 종목: 기관 경쟁률 및 의무보유확약률**

| 기업명 (시장) | 상장일 | 기관 경쟁률 (%) | 의무보유확약 신청률 (%) | 의무보유확약 배정률 (%) |
|---|---|---|---|---|
| 케이뱅크 (KS) | 3월 5일 | 198.5 | 51.0 | 51.0 |
| 액스비스 (KQ) | 3월 6일 | 1,124.2 | 75.7 | 96.2 |
| 에스팀 (KQ) | 3월 9일 | 1,334.9 | 42.5 | 82.9 |
| 카나프테라퓨틱스 (KQ) | 3월 16일 | 962.1 | 76.1 | 95.4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KQ) | 3월 20일 | 839.2 | 76.0 | 96.5 |
| 한패스 (KQ) | 3월 25일 | 1,172.6 | 27.4 | 83.0 |
| 메쥬 (KQ) | 3월 26일 | 1,108.9 | 75.4 | 96.7 |
| 리센스메디컬 (KQ) | 3월 31일 | 1,352.6 | 63.9 | 9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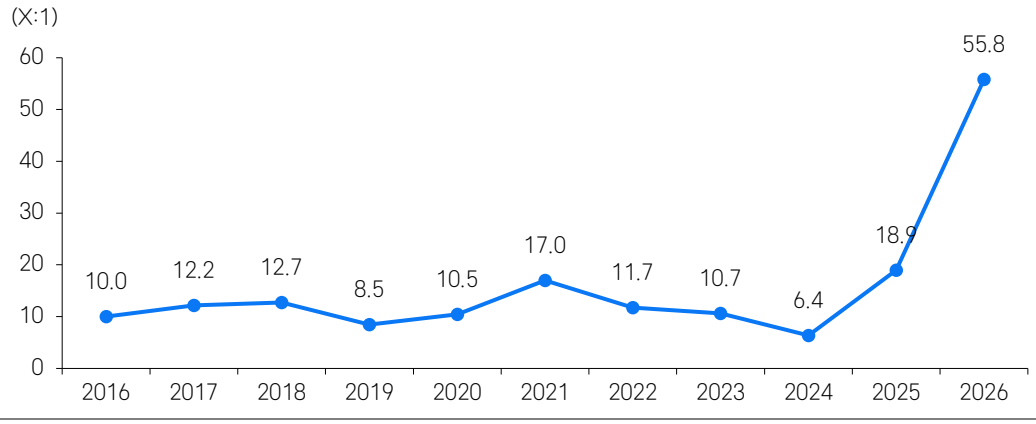
자료: 38커뮤니케이션, 각 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삼성증권

**표 3. 3월 IPO 종목: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 기업명 (시장) | 상장일 | 미확약 (%) | 15일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
| 케이뱅크 (KS) | 3월 5일 | 49.1 | 13.4 | 8.5 | 1.2 | 27.8 |
| 액스비스 (KQ) | 3월 6일 | 3.8 | 9.3 | 13.9 | 39.3 | 33.7 |
| 에스팀 (KQ) | 3월 9일 | 17.1 | 43.2 | 13.7 | 18.9 | 7.2 |
| 카나프테라퓨틱스 (KQ) | 3월 16일 | 4.6 | 8.2 | 10.1 | 36.1 | 41.1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KQ) | 3월 20일 | 3.5 | 6.0 | 7.4 | 25.2 | 57.9 |
| 한패스 (KQ) | 3월 25일 | 17.0 | 36.8 | 7.0 | 21.2 | 18.0 |
| 메쥬 (KQ) | 3월 26일 | 3.3 | 8.6 | 10.9 | 34.8 | 42.4 |
| 리센스메디컬 (KQ) | 3월 31일 | 5.8 | 21.7 | 28.2 | 30.4 | 2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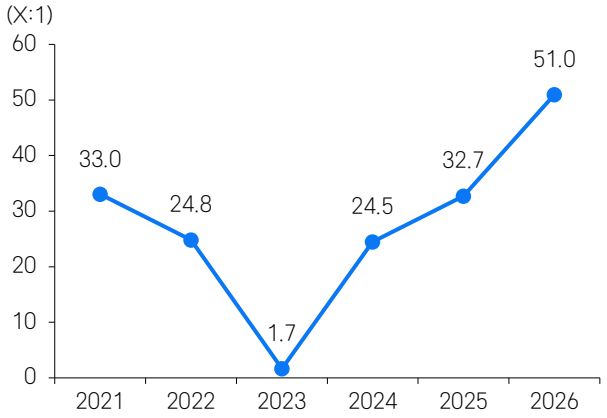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삼성증권

### 그림 7. 연도별 의무보유확약 평균 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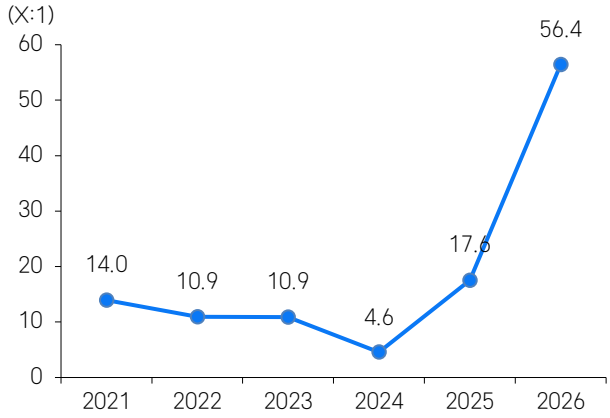

참고: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8. 코스피 상장주 의무보유확약 평균 신청률




참고: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9. 코스닥 상장주 의무보유확약 평균 신청률




참고: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2026년은 3월 31일 기준
자료: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Key Point ② – 액스비스, 에스팀,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일 수익률 +300%

3월에는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에서 최대 상승폭 +300%(따따블)를 3개의 종목들이 달성(vs '25년 연간 총 5종목)하며 IPO 시장의 열기를 입증. 구체적으로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기업 '액스비스', 모델 에이전시 및 콘텐츠 기업 '에스팀'과 자가면역질환 항체 치료제 전문기업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따따상 고지에 올라서며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수익률을 안겨주었음. 주목할 점은 위 세 기업은 각기 너무나 다른 산업에 속해있어 특정 유행 섹터에 편중되지 않는 전방위적 흥행이 나타났다는 것이 고무적 요인

이외에도 3월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장 당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제도 변화 측면에서 1) 금융 당국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 및 주관업무 제도를 개선하면서 작년부터 공모가 상단 초과 확정이 사라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전마진을 제공했다는 점과, 2) 앞서 언급한 의무보유확약 40% 우선배정제도로 인해 상장 당일 유통가능한 기관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제한된 물량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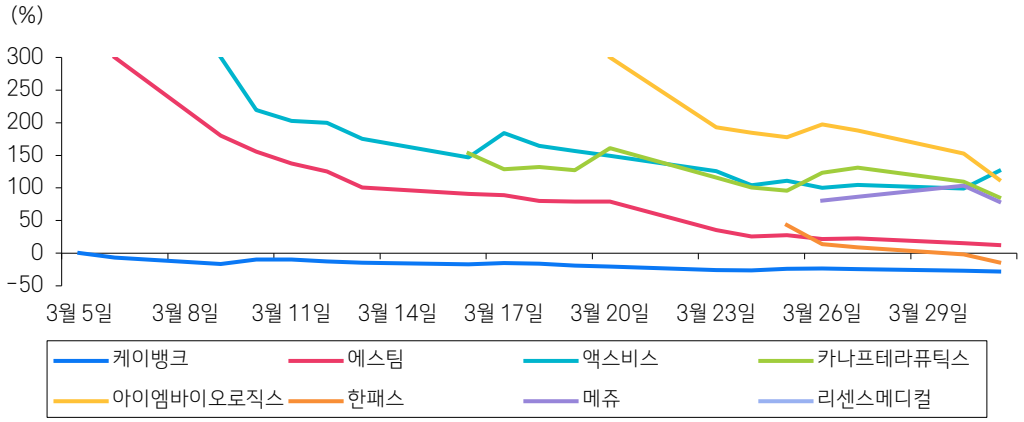
다만 상장 첫날 수급 쏠림에 의한 따따상 랠리는 어쩌면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에게는 최선의 엑시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종목이 상장 당일을 정점으로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며 이후 가파른 가격 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대목. 특히 3월 25일 상장한 한패스는 상장 당일 고가 기준 공모가 대비 +151.3%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3월 31일 기준으로는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 중. 또한 기존 주주들의 보호예수 물량 및 기관투자자의 증가한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순차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오버행 리스크 역시 상존함. 따라서 수급 과열로 인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상장 초기의 단기 흐름에 무작정 편승하기보다는, 잠재적 오버행 물량 출회 가능성을 고려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 가치 구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표 4. 2026년 3월 IPO 기업 개요 및 성과**

| 회사명 (시장) | 상장일 | 기업 개요 (주요 제품) | 상장일 수익률 (%) | 현재일 기준 수익률 (%)* | 현재일 시가총액 (십억원)* |
|---|---|---|---|---|---|
| 케이뱅크 (KS) | 3월 5일 | 인터넷 전문 은행 | 0.4 | -28.1 | 2,422.0 |
| 액스비스 (KQ) | 3월 6일 |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등 | 300.0 | 12.5 | 83.0 |
| 에스팀 (KQ) | 3월 9일 | 콘텐츠, 매니지먼트 | 300.0 | 126.1 | 242.7 |
| 카나프테라퓨틱스 (KQ) | 3월 16일 | 항암제 및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 | 153.0 | 85.5 | 480.7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KQ) | 3월 20일 | IMB-101 (OX40L/TNF 타겟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 300.0 | 112.7 | 817.1 |
| 한패스 (KQ) | 3월 25일 | 디지털 송금 서비스, 전자지갑 서비스, 선불카드 서비스 | 43.2 | -14.1 | 172.5 |
| 메쥬 (KQ) | 3월 26일 | 웨어러블 패치형 환자 감시장치 (HiCardi) | 80.6 | 78.9 | 375.6 |
| 리센스메디컬 (KQ) | 3월 31일 | 피부 냉각마취 의료기기, 경피약물전달 의료기기 등 | 67.7 | 67.7 | 2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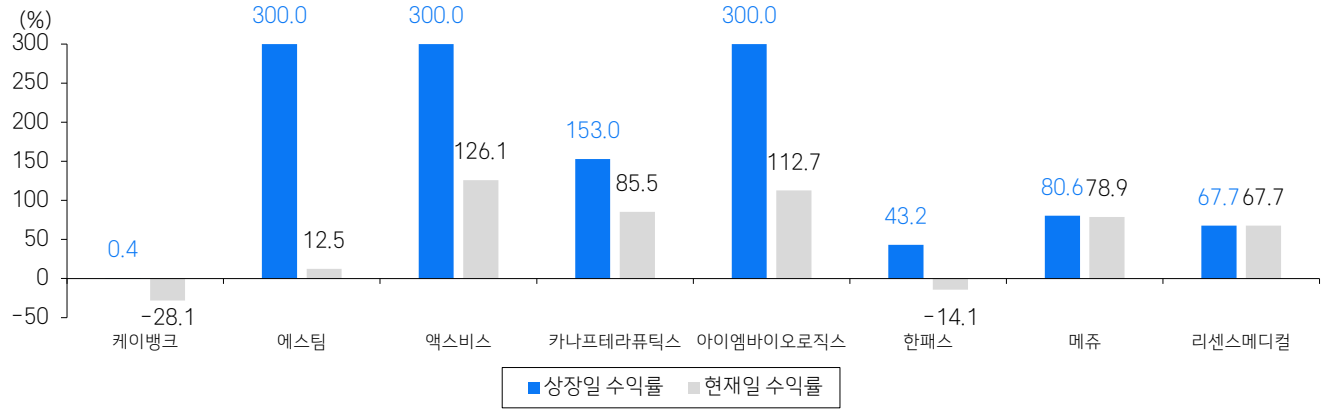
참고: 스팩 제외;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현재일은 3/31일 기준
자료: KIND, Quantiwise,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10. 3월 상장 종목: 공모가 대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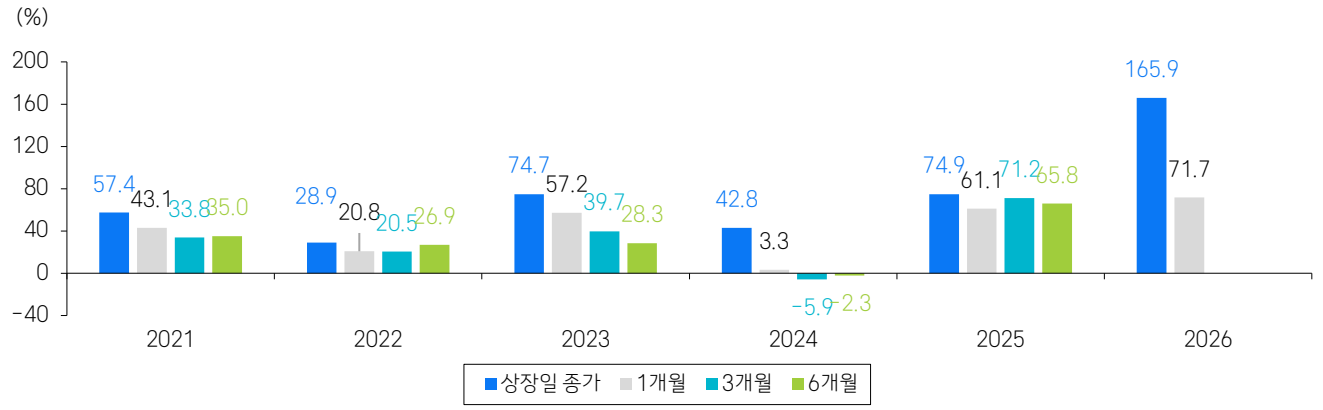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11. 3월 상장 종목: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 vs 현재일 수익률




참고: 현재일은 3/31일 기준 /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12. 2021~2026 연도별 상장종목 공모가 대비 수익률 평균




참고: 이전 상장,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 자료: KIND, 삼성증권

## 4월 IPO Market Preview – 인벤테라, 채비 대기 중

4월 IPO 시장은 전년도 연간 사업·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가 맞물리며 통상적으로 상장 종목 수가 부족한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4월 역시도 스팩과 리츠를 제외하면 상장 종목은 인벤테라, 채비 단 두 기업에 그칠 예정

작년 4월에는 에이유브랜즈, 한국피아이엠(이전상장), 쎄크 세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며 총 공모금액 약 646억원을 조달했었음. 올해는 나노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인벤테라'가 이미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상단을 확정 지으며 공모금액 약 196억원으로 4월 2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가 약 1,230~1,530억원의 비교적 규모있는 공모금액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채비가 만약 성공적으로 상장을 완주한다면 4월 전체 공모 금액은 전년 동월을 추월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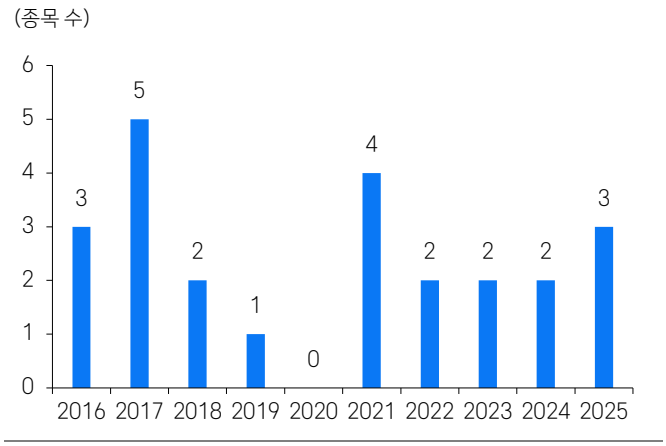
5월 이후로는 재활로봇 전문기업 '코스모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기업 '마키나락스', 프리미엄 육아용품 브랜드 '폴레드' 등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아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으로 이름을 올림. 다만 현재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한화를 제외하면 전부 코스닥 상장 추진 기업들인 것에 주목할 필요.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조 등에 힘입어 신규 상장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LS에식스솔루션, 넷마블네오 등 대기업 자회사 중심의 대형 IPO 후보군들이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따라 상장을 철회하며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까지 중복 상장 방지 관련 구체적 심사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당분간은 HD현대로보틱스, SK에코플랜트 등 대어급 종목의 코스피 상장 추진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7, 8 참고)

**표 5. 4월 이후 상장 예정 종목**

| 회사명 | 수요예측 일정 | 청약 일정 | 상장 예정일 | 희망(확정) 공모가 (원) | 공모금액 (십억원) | 주관사 |
|---|---|---|---|---|---|---|
| 인벤테라 (KQ) | 3.11~3.17 | 3.23~3.24 | 4.2 | 16,600 (상단 확정) | 19.6 |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
| 채비 (KQ) | 4.10~4.16 | 4.20~4.21 | | 12,300~15,300 | 123.0~153.0 | KB증권, 삼성증권 등 |
| 코스모로보틱스 (KQ) | 4.16~4.22 | 4.27~4.28 | | 5,300~6,000 | 22.1~25.0 |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
| 마키나락스 (KQ) | 4.28~5.6 | 5.11~5.12 | | 12.500-15,000 | 32.9~39.5 | 미래에셋증권 |
| 폴레드 (KQ) | | | | | | NH투자증권 |
| 피스피스스튜디오 (KQ) | | | | | |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 레몬헬스케어 (KQ) | | | | | | KB증권 |
| 신한제17호스팩 (KQ) | 3.13~3.16 | 3.19~3.20 | 4.1 | 2,000 | 10.0 | 신한투자증권 |
| 교보20호스팩 (KQ) | 3.16~3.17 | 3.23~3.24 | 4.2 | 2,000 | 10.8 | 교보증권 |
| 키움히어로제2호스팩 (KQ) | 4.9~4.10 | 4.14~4.15 | | 2,000 | 12.0 | 키움증권 |
| 신한제18호스팩 (KQ) | 4.14~4.15 | 4.20~4.21 | | 2,000 | 10.0 | 신한투자증권 |
| 대신밸런스제20호 (KQ)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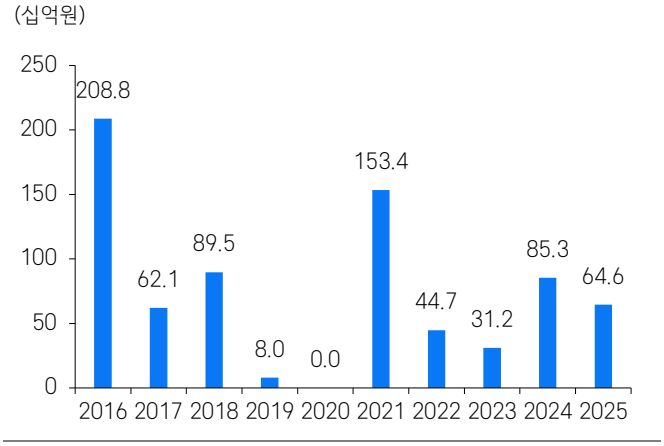
자료: KIND, 38커뮤니케이션, 삼성증권

### 그림 13. 연도별 4월 상장 종목 수




참고: 1. 공모금액을 조달하지 않은 신규상장, 이전상장 종목은 제외
2.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그림 14. 연도별 4월 공모금액




참고: 스팩, 리츠, KONEX 상장 제외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표 6. 예비심사기업 리스트

| 회사명 | 시장구분 | 상장유형 | 청구일 | 주요 제품 (업종) | 상장주선인 |
|---|---|---|---|---|---|
| 씨엠디엘 | 코스닥 | 스팩 소멸합병 | '25.09.1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교보증권 |
| 디티에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5.09.18 | 산업용 열교환기 | 대신증권 |
| 스트라드비젼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0.30 | AI 기반 자율주행용 비젼인식 소프트웨어 | KB증권 |
| 져스텍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1.07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모션시스템 | 삼성증권 |
| 덕산넵코어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1.11 |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데이터링크 등 | 대신증권 |
| 디토닉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1.13 | AI 데이터 플랫폼 D.Hub | NH투자증권 |
| 매드업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1.28 | 광고 운영 및 대행, 디지털 마케팅 AI 에이전트 | 미래에셋증권 |
| 에스케이팩 | 코스닥 | 스팩 소멸합병 | '25.11.28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교보증권 |
| 메타넷엑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2.09 | Hybrid Cloud, Public Cloud | NH투자증권 |
| 빅웨이브로보틱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2.16 | 로봇 플랫폼 (마로솔, 솔링크) |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 넥스트젠바이오 | 코스닥 | 신규상장 | '25.12.23 | 자가면역질환 및 섬유증 치료제 | 한국투자증권 |
| 한화 | 유가증권 | 재상장 | '26.01.14 | 산업용 화약, CHEMICAL사업 및 산업재 무역업, 건설업 등 | NH투자증권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1.16 |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 등 | IBK투자증권 |
| 파워큐브세미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1.16 | 1. Si SJ MOSFET 등, 2. SiC MOSFET 등, 3. Mica, Mi 등 히터 등 | 하나증권, BNK투자증권 |
| 레메디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1.30 | 의료용 휴대용 엑스선 영상촬영장치 | KB증권 |
| 스카이랩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1.30 |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 | 한국투자증권 |
|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1.30 | 안구망막질환치료제, 녹내장치료제, 만성신장질환치료제 | 삼성증권 |
| 케이솔루션 | 코스닥 | 스팩 존속합병 | '26.02.12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DB증권 |
| 딜리셔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2.25 | 패션 B2B 플랫폼(신상마켓) | 한국투자증권 |
| 피지티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2.27 | 이차전지 전해액 소재(LiPF6), 화장품 첨가제(PHC-01 등) 등 | 한국투자증권 |
| 메리츠제2호스팩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04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메리츠증권 |
| 한국제16호스팩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20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한국투자증권 |
| 니어스랩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23 | KAiDEN, XAiDEN,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삼성증권 |
| 해치텍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23 |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습도센서 등 | DB증권 |
| 인텔리빅스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24 | AI 관제 인프라, AI 관제 플랫폼 등 | 미래에셋증권 |
| 제이피이노베이션 | 코스닥 | 신규상장 | '26.03.25 | 믹싱 공정 장비 | 삼성증권 |

참고: 3/31일 기준 / 자료: KIND, 삼성증권

### 표 7.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 구분 | 내용 |
|---|---|
| 신뢰 | 1) 주가조작 적발역량 및 처벌 강화<br>2) 회계부정 엄단 등 회계투명성 강화<br>3) 자본시장 평가인프라 기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br>4) 부실·저성과 기업 신속퇴출<br>- 엄격, 신속한 상장폐지<br>- M&A 활성화를 통한 퇴출 유도" |
| 주주보호 | 1) 중복상장 원칙금지<br>2)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br>- M&A시 공정가액 산정<br>- 저PBR 기업 가치제고<br>- 보유자산 재평가<br>3)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
| 혁신 | 1)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br>2)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br>-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br>- 모험자본 생태계(회수시장) 개선을 통한 상장 전 기업성숙 지원<br>-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로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br>3) 국민성장펀드 및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 본격 가동" |
| 시장접근성 | 1) 세제지원 신상품 조속 출시 등 국내 장기투자 기반 마련<br>2) 외환, 증권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br>3) 토큰증권을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확대" |

참고: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발표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 표 8.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 '중복상장 원칙금지' 구체적 내용

| 구분 | 내용 |
|---|---|
| 현행 | - 해외 주요국 대비 중복상장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복상장이 핵심사업 분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br>- 특히 유망 자회사 중복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 우려 |
| 개선 | 1)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 원칙 금지<br>* 일반주주 동의, 국내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br>- 쪼개기 상장(물적·인적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중복상장 심사대상 심사기준을 명확히 정립<br>2) 자회사 중복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 (자회사의 해외 중복상장시에도 적용 가능)<br>*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금지는, 자회사를 해외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는 규율 불가능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통해 범위 확대 및 보안<br>-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 부과<br>* 모회사 주주 관점에서 중복상장이 부정적이면 실질적으로 추진 제한 |

참고: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발표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